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인 졸업생과 가족들



축사를 하고 있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졸업 축하 손편지를 든 이은주 총장과 졸업생들

“리더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는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출발이 돼야 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대학, 배움을 향한 의지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라며 “승고한 도전과 값진 결실에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6년 2월 본교 문화예술경영학과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축사를 전했다. “작년 졸업식에 참석했

는데 다시 이렇게 학교를 찾으니 감개무량합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졸업생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기를

이은주 총장과 정영애 부총장은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학위수여증을 전달했다. 졸업식에 함께 참석한 가족들은 아낌 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 이어 우수 졸업생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열렸다.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이사장상은 상담심리학과 채은미 학우가 받았다. 학부별 수석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총장상, 봉사상, 대학원장상, 우수 논문상, 공로상 수상자가 차례로 연단에 올라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다.

학과별 사진 촬영을 끝으로 공식적인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끝났다. 학위수여식은 끝났지만 졸업생의 또 다른 미래와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하고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고령 졸업생 박혜경 학우 (만 69세, 상담심리학과)

2015년에 상담심리학과에 편입한 박혜경 학우는 ‘2016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의 최고령 졸업생이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상담심리학과는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공부는 평생 안았던 인생의 고민을 깊게 파고들게 했고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는 법을 알게 했다. 또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찾는 나침반이 됐다. “공부하는 내내 행복했어요. 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없기에 한 번도 공부가 힘든 적이 없었죠. 공부로 삶의 지평과 시야가 넓어졌어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열심히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경 학우는 국가 공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 중이고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다. 전공을 살린 봉사 활동도 꾸준히 실천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사모를 던지며 자축하는 졸업생들